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

- 의료제품 재고 4차 조사 결과, 전년 대비 100~126% 수준 정상 보유 재확인 -
- 의약단체 온라인 몰 구매 제한도 중동전쟁 이전 방식으로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동전쟁 종전 여부 등 의료제품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계 부처, 보건의약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의 안정적인 수급 추세를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 2일(화)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주사기 등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병의원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5.26.~5.29.) 결과 전년 대비 품목별로 100~126%*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원 및 한의원도 해당 직역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 중동전쟁 이전의 판매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의료제품 구매 환경이 이전에 비해 한층 개선되었다.

* 1차(84~116%), 2차(89~105%), 3차(98~115%)

** 대한의사협회(의사장터)의 주사기 공급 대상을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 대한한 의사협회(AKOM몰)의 부향컵 구매 횟수 제한 조건 삭제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조치 경과*도 살펴보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원료 공급을 확대한 것을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의 주요한 이유로 평가했다.

* 수액제 포장재(3.24), 주사기주사침(4.7), 약포지 및 투약병(4.12.) 등 원료 우선공급 조치, 「주사기 주사침 매점매석 고시」 시행(4.14.~),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시행(4.27.~) 등

이형훈 제2차관은 “의료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회사 설비 가동률이 중동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대한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는 계속될 예정이다” 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대비 태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붙임>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약단체 회의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중동전쟁의료용품수급대응단	책임자	팀 장	양승호 (044-202-2425)
	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044-202-2426)



1. 개 요

○ (일시) 2026. 6. 2.(화) 08:00~09:00 (60분)

* 조찬 포함

○ (장소)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세종대로19길 16)

○ (보건의약단체 참석자) 총 12명

- 대한의사협회부회장, 대한병원협회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 대한한의원협회부회장, 대한약사회부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부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상무이사, 한국의약품유통협회부회장,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전무이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부회장,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 (논의사항) 중동전쟁 영향 보건의료 현장 의견 수렴

2. 진행 일정

시간 (60')		내 용	비 고
08:00~08:05	5'	○ 모두 발언	제2차관
08:05~08:55	50'	○ 관계기관 의견 청취	참석자
08:55~09:00	5'	○ 마무리 발언	제2차관